

Market Index / 4일

코스피지수 ▼ 2084.07 -7.85

코스닥지수 ▼ 629.58 -4.92

유가(WTI, 달러) ▲ 55.96 +0.79

환율(원) 1USD 1208.28 1166.72 1EUR 1342.30 1289.92 100¥ 1107.44 1069.36 1CNY 176.99 160.15

“제주경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필요”

한은 제주본부·제주연구원 하반기 지역경제 세미나 고봉현 박사 “인구감소·경기부진 하방 리스크 확대”

제주의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제주경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봉현 제주연구원 상생경제연구부장은 3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불확실성 시대의 제주경제’를 주제로 열린 ‘2019 하반기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불확실성시대 제주경제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고 박사는 “2017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20조원이며 경제성장

률은 4.6%를 기록했다”며 “2011년 이후 5~8%대의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2016년을 정점으로 인구 순유입 규모 및 관광객 감소,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고 박사는 현재 제주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 등을 토대로 전제조건 및 시나리오를 가정해 전망할 때 제주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에 의한 인구절벽, 경제규모 축소로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응해 가칭 ‘제주경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조기경보시스템(EWS)은 경제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기관리체계로, 현재 정부는 대외·금융·원자재·부동산·노동·곡물 등 6개 부문에 EWS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충남이 2017년에 ‘충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연구를 거쳐 경제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준명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은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의 특징 및 시사점’의 주제발표에서 “향후 제주경제 정책 의사결정은 고성장보다는 안정적 성장에 기반해야 하며 주력산업과 신성장 산업간 시너지 창출 등 성장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그는 ▷바이오, 전기차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광 및 1차산업과 ICT간 연계 확대 ▷서비스업 생산을 향상하고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 추진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민간소비 여력 확충의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도민 1인당 대형마트서 한해 80만원 소비

호남지방통계청 2015~2018년 판매동향 조사결과 세대당 190만원 지출...인구 늘었지만 매출 감소세

지난해 제주도민 1인당 대형소매점에서 80만원을 사용했고, 1세대당 1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15~18) 제주도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400억원으로 3년 전인 2015년 5123억원에 비해 5.4% 증가했다. 제주의 증가율은 경기(9.3%)와 충남(8.6%)에 이어 세번째로 높고 그 뒤를 강원(2.4%), 경남(2.0%), 충북(1.9%), 전북(-2.3%), 전남(-6.9%)이 이었다.

주인구는 2015년 대비 6.9% 증가했지만 판매액지수는 0.2% 감소세를 보이며 대형소매점의 인기는 예년보다 낮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제주도민 1인당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80만원, 1세대당 판매액은 19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인구 66만7000명, 세대수 28만7000세대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다. 제주는 경기의 1인당 120만원, 1세대당 300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전국평균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경기도의 인구집중에 따라 각각 1인당 120만, 1세대당 290만원이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은 2015년 5123억원, 2016년 5511억원, 2017년 5571억원, 2018년 5400억원이다. 판매액 증감 규모 및 증가율은 ▷2015~16년 388억원, 7.6% ▷2016~17년 60억원, 1.1% ▷2017~18년 -171억, -3.1% 씬으로 전국 7위다. 다만 지난해 제

백금탁기자

오리온 “제주용암수 국내판매 의사 밝혔다”

3일 준공식·기자간담회 개최 “용암해수 공급 제한 검토”

국내시장 판매 여부를 두고 제주도과 진실공방 중인 오리온제주용암수가 공장 준공식을 갖고 국내·외 시장 확대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용암수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제주도의 주장과 맞서기 때문이다.

허인철 오리온그룹 총괄부회장은 3일 공장 준공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용암수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국내 판매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허 총괄부회장은 “2016년 11월 3년 전 원희룡 지사와의 두번째 만남에서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 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당시 도청 관계자들이 배석했고 이와 관련해 이후에도 (제주도의) 별다른 내용이 없어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오리온은 중국 등 세계 영업망을 갖고 있어 제주용암수를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



3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제주용암수 공장 준공식에 앞선 기자회견회에서 허인철(가운데) 오리온그룹 총괄부회장은 “제주용암수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국내 판매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다”며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을 물 을 세계시장에 내어 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허 총괄부회장은 “최근 제주도의 ‘삼다수와 경쟁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상태지만 향후 물공급 계약은 물론 유통 등 삼다수와의 공생문제 등에 따른 제주도와의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제주도는 오리온 용암수의 국내 판매를 막을 근거는 없지만 제

주도의 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JTP) 산하 용암해수센터를 통해 염지하수의 공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막강한 유통망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는 제주삼다수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오리온과 제주도의 용암수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심화되면서 향후 법정싸움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용암

해수산업단지에 입지한 오리온제주용암수는 1200억원을 투입, 전체면적 3만㎡ 부지에 건축면적 1만4985㎡의 ‘제주용암수’ 공장을 지어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제주용암수 공장은 연간 330㎖, 530㎖, 2ℓ 등 제품 2억4000여병을 생산할 수 있다. 12월 1일 국내 판매를 시작한 제주용암수는 내년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앞으로 러시아와 인도 등 영업망을 구축한 국가를 대상으로 판매망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소폭 오름세

제조업 ↓... 비제조업 소폭 ↑

이달말 제주지역의 중소기업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도내 55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019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9.6로 전월대비 4.4p 상승했다.

이는 반일 감정으로 일본여행이 급감함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관광업 활성화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12월 경기전망은 식품, 음료 부문이 전월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의류용 물질 및 의약품, 금속가공제품 부문이 9.2p 하락한 88.2로 조사됐다. 반면 비제조업은 스포츠 및 오락관련, 음식점 부문이 전월보다 11.7p로 상승한 90.3로

나타났다.

SBHI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의 경기 전망을 조사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으면 100 이상으로 표시하고 그 반대로 100 이하로 표시한다.

특히 생산(97.4→94.1), 고용수준(93.5→90.6), 내수판매(84.3→84.9), 영업이익(80.6→84.0), 자금사정(81.5→82.1) 전망에서 등락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달 중소기업 업황실적(SBHI)은 전월대비 14.0p 상승한 89.6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9.1p 오른 91.2, 비제조업은 14.6p 상승한 88.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경영여로 응답을 살펴보면 ‘인건비 상승’(56.6%), ‘자금조달 곤란’(53.7%), ‘내수부진’(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성기자 kks@ihalla.com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p>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참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064-747-5115
	<p>※ 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 80㎡ 3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동마을 맹지 대 674㎡/매가 50㎡ 5억 해안동 생관안아(목장) 맹지 28,842㎡ 6억 아리동기차촌 1090㎡ 9.24억 아리동기차촌 1090㎡ 9.24억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동·서양난, 촉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꽃보라화원 ☎ 746-0014, H-P 010-3693-556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